

## 영성 훈련 참여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다일 영성 훈련을 중심으로\*

###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Spiritual Training: Focusing on Dail Spiritual Training

조 한 상 (Han Sang Cho)\*\*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and describe the experiences and changes that take place within participants in Dail spiritual training. For this study, 6 adults who experienced Dail spiritual training were selected. The data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ere analyzed by A. Giorgi's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In this process, the changes that occur in the spiritual journey of the participants were examined focusing on the traditional structure of purification, illumination, and union with God. As a result, first, most of the participants enjoyed spiritual freedom as anger and depression decreased, and wounds, pain, and trauma recovered and healed. Second, we discovered that they experienced God's love deeply through Lectio Divina after participating Dail spiritual training. Third, the participants had new perspectives such as mission and goal consciousness increased.

Although in-depth interviews with various groups were insufficient with limited time and limited research personnel, it is meaningful in that it was the first to attempt qualitative research on Dail spiritual training that has lasted for 20 years. Korean churches need to find a new path after COVID-19. With the recent decline in the number of churches' finances and members in the aftermath of COVID-19, Dail spiritual training

\* 2021년 11월 11일 접수, 12월 3일 게재확정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A8046978)

\*\* 호남신학대학교(Honam Theological University & Seminary) 신학과 교수, 광주광역시 남구 계중로 77, chohs114@htus.ac.kr

is considered an alternative. Therefore, the Korean church should prepare for the post-COVID-19 era by introducing spiritual training as soon as possible to contribute to the spiritual renewal and recovery of congregational member and the improvement and revival of the Korean church. As an alternative, this study explored Dail spiritual training with a phenomenological approach.

**Key words :** Dail spiritual training, phenomenological research, Giorgi's method, spiritual freedom, divine encounter

## I. 들어가는 말

20세기가 ‘원자의 시대, 유전자의 시대’라면, 21세기는 ‘의식의 시대, 내면의 시대’라고 한다. 최근 종교적 용어였던 ‘명상’ 혹은 ‘영성’이라는 단어가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 대중화되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은 그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New York Times, 2011.1.28). 아울러 그러한 흐름에는 과학과 이성의 발달로 나타나는 인간소외와 고독, 분열에 대한 반응과 존재에 관한 질문 그리고 영원에 대한 갈망이 분출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대인들의 욕구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동양 사상과 신비에 관한 관심으로 나타났고, 기독교 영역에서는 한쪽으로 밀어놓았던 렉시오 디비나(lectio divina), 그리스도 생애로 기도하기(복음서 묵상), 향심기도, 영성 지도와 영적 분별 등 다양한 형태의 영성 훈련이 주목받게 되었고, 영성학에 관한 관심으로 발전하였다(유해룡, 1999: 428-450; 이강학, 201: 221-245; 최승기, 2014: 297-327). 아울러 코로나19 (COVID-19) 상황으로 비대면과 비접촉이 일상화된 시대적 추세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갈증을 심화시켰고, 신앙의 근본에 대하여 고민하던 신앙인들이 영성과 영성 훈련에 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영성 훈련 참여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로 국내에 소개되고 실시되었던 다양한 영성 훈련 중 하나인 다일 영성 훈련에 집중하였다. 그래서 다일 영성 훈련 참가 경험이 있는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본 연구자는 다음의 질문을 연구과제로 삼았다. 즉, 연구참여자는 다일 영성 훈련 참여로 인해 어떠한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부정적 혹은 긍정적 감정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감정의 변화가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일 영성 훈련에 관한 질적연구를 시도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다일 영성 훈련 참여자들의 변화를 살펴보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 II. 다일 영성 훈련에 대한 소개 및 기존 연구 고찰

최근 영성에 관한 관심과 더불어 다양한 영성 훈련이 한국교회에 소개되고 있다. 이러한 영성 훈련은 대부분 서구로부터 직수입되었거나,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다일 영성 훈련은 한국적인 정과 멋이 어울려져 토착화된 영성 훈련으로 우리 민족의 한과 상처를 치유하며 전통적인 영성훈련과 접목한 ‘K-영성 훈련’이다(이강학, 2010: 146). 먼저, 다일 영성 훈련을 이해하려면 그 모태가 된 다일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일 공동체는 제일

도 목사와 김연수 사모가 주도하여 1988년에 시작되었다. 1988년 11월 11일 서울 청량리역 광장에 쓰러진 노숙인 함경도 할아버지를 만나 그분에게 설렁탕 한 그릇 대접하면서 처음 ‘밥 퍼’가 시작된 이래, 다일공동체는 지난 33년 동안 11개 나라, 21개 분원에서 ‘밥 퍼’와 ‘빵 퍼’와 ‘꿈 퍼’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다일공동체는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에 근거하여 33년 동안 일관되게 ‘밥 퍼’와 다일천사병원, 데일리 다일 그리고 다일 복지재단 등을 통해 이 땅의 노숙자와 소외된 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빈민 지역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최일도, 2020: 5). 따라서 다일공동체는 다양성 속에 일치를 추구하며 이 땅의 소외된 자들을 섬기고, 나누며, 봉사하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영성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일공동체의 정신을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나사렛 예수의 영성을 추구하는 영성 생활, 둘째, 예배와 예전의 갱신을 통한 성사 생활, 셋째, 일하며 기도하는 공동생활, 넷째, 나눔과 섬김의 봉사 생활”을 추구하는 것이다(차성경, 2021: 33). 아울러 다일공동체의 영성은 수직적으로 깊은 고독과 침묵 속에서 관상적 영성 생활을 추구하는 한 축과 수평적으로 육화적 영성으로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활동하는 사도적 영성을 추구하는 다른 한 축으로 구성되었다(최일도, 2021: 290-297). 이를 위하여 다일 영성 훈련은 1단계로 아름다운 세상 찾기, 2단계로 작은 예수 살기, 3단계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나누어 각각 한 주간씩 진행되는 데 각 단계에 따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강조하여 전체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프로그램을 지향하고 있다(조한상, 2021: 365-374). 이러한 구조는 이나시오 영신 수련 과정을 한 주간씩 나열한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한 달씩 집중하여 영성 훈련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한국적 상황에 맞춰 토착화 한 것이다(Puhl, 1968). 아울러 최일도 목사와 김연수 사모의 하나님 체험과 삶의 경험이 어우러져 치유와 회복을 포함한 독특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1, 2, 3단계의 영성 훈련을 마친 이들을 중심으로 공동생활을 하며 나사렛 예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다일 DTS(Disciple Training School의 약자로 우리말로 하자면 ‘제자훈련학교’라고 번역되며, 이후 DTS 약자를 사용하고자 한다) 과정이 있다.<sup>1</sup> 이는 최소 3개월에서 약 1년의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머리로 알았던 영성 이론을 삶으로 실천하며 국내외에서 공동생활을 하며 섬김과 봉사의 생활을 몸에 익히는 과정이다. 하루 24시간 중 1/3에 해당하는 8시간은 영성 생활, 다른 1/3인 8시간은 노동, 마지막 1/3인 8시간은 휴식과 취침 시간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하여 자아실현이 아

1) 다일 DTS의 시작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침묵의 집은 도시빈민 구제 사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서울근교 한적한 곳에서 침묵과 묵상 가운데 영성 생활을 수련할 수 있도록 가평군 설악면 북안1리 산자락에 비닐하우스와 조그마한 오두막을 짓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1998년 최일도 목사의 첫 번째 저서 ‘밥 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의 인세의 절반은 북한 결핵환자 돕기를 위하여, 나머지 절반은 다일공동체에 현금하여 농가주택을 구입하였다. 그 후 1999년 부활절 다일 영성 훈련원이 개원하여 1, 2단계가 진행되었고, 2003년 DTS 훈련 1기가 시작하였다.

난 자기 부인을 배우게 되어, ‘무엇에나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나 받아들이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통해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최 홍, 2020: 13). 또한, 더불어 사는 공동생활의 회복과 일상의 영성을 추구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일 영성 훈련 1, 2, 3단계와 다일 DTS를 수료한 이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과정이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변화의 경험을 탐구하고자 하였다.<sup>2</sup>

기존의 연구를 고찰해 보면 국내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교단 산하 신학대학원생들이 참석한 2박 3일간의 영성 훈련 기간 동안 진행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참가자들의 감정과 심리적 변화 등을 고찰한 연구가 있는데 영성 훈련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를 최초로 시도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김동란, 김윤희, 김정훈, 2019: 251-292). 그러나, 이 연구는 영성 훈련 기간 자체가 지나치게 짧고 (2박 3일) 신학대학원생을 연구참여자로 한정하여 한계가 있어 보였고, 연구자 구성이 모두 영성학 전공자가 아닌 점에서 무리가 있어 보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일 영성 훈련 1, 2, 3단계와 DTS를 수료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기간상으로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을 요구한 후 이를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기존의 다일 영성 훈련 연구가 주로 양적연구에 치중하였다면 본 연구는 질적연구를 최초로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전창근, 2011: 65-75; 유장춘, 2014: 7-46; 유장춘, 강병덕, 2015: 239-262; 유장춘, 강병덕, 2017; 이강학, 2017: 26-48; 최일도, 2017: 49-73; 조한상, 2020: 255-278).

### III. 연구 방법의 이해

#### 1. 지오르기(Giorgi) 방법론을 이용한 현상학적 연구

현상학은 19세기 이후 자연과학이 주도하는 학문적 풍토 속에서 나타난 하나의 저항으로 우리의 일상 경험의 본성이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었는데, 그 내용은 개인의 감정, 정서적 상태, 태도, 그리고 지각된 의미로 이루어진다(김영천, 2017: 23-26). 즉 현상학적 연구는 체험을 연구하며, 의식에 나타나는 모습 그대로 현상을 해명하는 것이고, 본질을 연구하여 체험적 의미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은 모습 그대로 기술하는 것으로, 인간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탐구하는 것이다(Van Manen, 1990, 신경림 역, 2000: 35-40). 다양한 현상학적 연구 방법 가운데 하나인 지오르기의 방법론은 연구참여자의 경험에 초점을 두고 그들의 언어로 기술된 현상에 대한 심층적 탐색을 통해 참여자가 인식하는 내용과 구조를 생생하게 묘사하는 분석 방법을 강조하고 있

2) 다만, 코로나19 상황이어서 연구참여자 중 한 명은 마지막 3단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인터뷰에 참여하였는데 이 경우 신대원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예를 들자면, 영성 훈련의 실제)을 이미 경험하였기에 예외적으로 연구대상자에 포함하였다.

다. 분석과정에서는 상황적 구조기술에서 연구참여자 개개인의 독특성을 자세히 드러낸 후 전체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일반적 구조기술을 통해 통합하는 특징을 지닌다(이남인, 2014:32-37). 최근 인문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심리학, 상담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교육학뿐만 아니라 영성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질적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방윤주, 2021:183-213; 지상선, 현은자, 2021:83-123; 김주경, 오대희, 2019:193-221; 조지혜, 2019:5-49; 조현미, 최은정, 조은주, 2018:159-195; 한미영, 손수경, 2017:265-288; 김영수, 2017:117-14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오르기의 현상학적 분석 방법론을 이용하여 본 논문을 진행하고자 한다(Giorgi, 1985; 신경림 외, 2004).

## 2. 연구참여자의 선정 및 특성

연구참여자의 경우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로 하되, 성별이나 사회적 또는 경제적 요인의 제한을 두지 않고, 심신 건강한 남녀로 연구를 위한 다일 영성 훈련에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의 참여자 선정은 설곡산에 위치한 다일 영성 수련원 게시판에 공지하고 신청한 분들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10회 이상 다일 영성 훈련을 참가한 이들로 구성되어 다일 영성 훈련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총 6명으로 남성 4명, 여성 2명이었으며, 연령은 40대에서부터 60대까지였고, 평신도 2명, 목회자 3명, 그리고 선교사 1명으로 모두 기독교인이었다. 영성 훈련 참여 경험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 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나, 수치상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다(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 연구소 편, 2006 a,b).<sup>3</sup> 아울러 연구참여자들은 인터뷰에 개방적이었고, 협조적이었다.<sup>4</sup> 비록 연구참여자들은 신앙경력과 직분 그리고 참여 횟수에 차이가 있었으나 이에 따른 연구 결과의 차이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Table 1.> Demographic analysis of participants

연구참여자	성별	나이	신앙경력	가족관계	직분	다일 영성 훈련 참여 횟수
1	남	56	6년	5남매 중 차남	평신도	약 50회
2	남	49	10년	8남매 중 막내	평신도	약 10회
3	남	61	45년	2형제 중 막내	목회자	약 10회
4	남	47	47년	3남매 중 둘째	목회자	약 100회
5	여	56	50년	6남매 중 둘째	선교사	3회
6	여	64	50년	4남매 중 막내	목회자	약 20회

### 3.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한 질문지는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하였고, 인터뷰는 2021년 5월~9월까지 개인당 2회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면접 소요 시간은 1회당 60분씩 총 2회 120분으로 정했지만, 참여자가 더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경우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이를 경청하였다. 질적연구의 경우 정해진 숫자는 없지만, 선행연구에 따라 6명을 선정하여, 질적연구를 진행하였다(최미경, 2014:199-227; 김희영, 2019:205-247). 비록 5개월에 걸친 인터뷰를 통해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본 연구자는 2014년부터 다일 영성 훈련 공동 인도자로 참여하였기에 연구 준비기간과 연구참여자와의 관계 형성 등을 고려하면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된 연구였다.

###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자료 분석을 위하여 사회과학적 분석 방법인 지오르기의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먼저 인터뷰한 내용을 녹음하고, 녹음된 내용을 듣고, 전사한 인터뷰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읽었다. 전사한 인터뷰 내용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반성하는 과정을 통해 진술한 내용 속에 들어있는 의미의 단위들을 파악하였다. 전체 내용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없기에 부분적으로 의미 단위로 구별하며 각각의 의미 단위로 묶고 다시 기술하였다. 각각의 의미 단위를 전체적인 의미와 연관시켜서 그것의 의미를 학문적 용어로 정의하였다. 현상학적 의미의 언어로 이해한 후 분석과정을 통해 드러난 의미를 종합하면서 파악된 본질 구조를 기술하였다. 판단 중지를 위하여 본 연구자는 자료수집 기간에는 문헌조사를 최대한 자제하여 사전지식이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였으며, 자료 분석 및 연구를 질적연구방법 절차에 따라 수행하였다.

### 5.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지정 공공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인증 절차를 거쳐서 허락을 받아 승인번호를 부여받은 이후 진행되었다(과제번호 2021-0371-003). 아울러 공공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본 연구의 책임자는 연구참여자 모집 공고를 내고 참여자를 만났다. 그 후 본 연구를 소개하고 참여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설명했으며, 나머지 연구

3) 우울 자가 진단의 경우 벡(Beck)의 우울증 척도 한국판을, 불안 자가 진단의 경우 Beck의 불안 질문지를, 자아존중감의 경우 로젠베르크(Rosenberg, 1965)의 척도를 전병제(1974)가 번안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는데, 이 경우 연구참여자들 모두 다일 영성 훈련 재경험자로서 수치상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이곳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인터뷰 중에 연구 참여자들이 본인의 변화를 언급하였기에 이를 논문 중간에 자세히 설명하였다.

4)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집합 금지 조치가 반복되다 보니, 원래 계획하였던 일정대로 한 장소에 모여 영성 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부득이 지난 2년간 다일 영성 훈련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윤리 과정은 통상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

## 6. 연구의 진행 과정

참여자들은 본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이나 근처 카페 등 당사자가 편한 곳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인터뷰를 진행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단해도 아무런 피해가 없음을 알려 주었다. 특히 참여자가 연구책임자와 종속관계에 있거나, 강압하에 동의를 강요한다든지 이와 유사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연구가 중단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따라서 연구책임자와 연구대상자가 대등한 위치에 있음을 주지하였으며, 미리 인터뷰에 사용될 질문을 주어 생각할 시간을 주어 인터뷰가 풍성하게 진행되도록 하였다.<sup>5</sup>

## 7. 연구 참여에 대한 이익과 보상 외

본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에게는 영성 훈련의 연구와 발전 그리고 한국교회와 사회의 영성 훈련 연구를 위해 도움이 될 것임을 공지하였고, 참여하신 분들은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교통비(1회 30,000원) 수준의 비용을 상품권으로 지불하였다. 이러한 사항은 연구 시작 전 미리 공지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통상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

# IV. 연구 결과

연구참여자들의 면담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60개의 의미 단위와 16개의 드러난 주제, 12개의 본질적 주제 그리고 3개의 대 주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본질적 주제는 예측된 삶, 감내의 한계를 넘어선 아버지, 가족의 기대에 부응함, 의무감, 갈망, 각성 및 성찰, 내면의 치유, 관점의 변화, 거룩한 만남, 자유, 새 출발, 일상의 영성 등이며, 대 주제는 영적 여정에 있어서 전통적인 발전 단계인 영성 형성 및 정화, 조명, 일치로 구분하였다.<sup>6</sup>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 인터뷰에 사용된 질문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나이와 신앙경력을 알려주세요. 2. 다일 영성 훈련 참여 횟수는 몇 회나 되나요? 3. 어린 시절 어떻게 지냈는지 떠오르는 기억이나 가정환경을 이야기해 주세요. 4. 어린 시절 당신의 꿈은 무엇이었나요? 5.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6. 영성 훈련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7. 영성 훈련에 참여하면서 기대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8. 영성 훈련 참여 중 전반적인 과정과 느낌은 어떠하나요? 9. 영성 훈련 참여 중 새롭게 배우고, 경험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10. 렉시오 디비나/복음서 묵상을 하면서 변화된 점이 있나요? 11. 영성 훈련 프로그램 중에서 기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나누어 주세요. 12. 영성 훈련 참가 후 이전보다 어떠한 영역에 있어서 삶의 변화가 있었나요? 있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6) 영적 진보의 단계는 에바그리우스(Evagrius Ponticus)에 의해 세 단계로 제시되었는데 그 후 위-디오니시우스(Pseudo-Dionysius)에 의해서 변형된 모습 즉, 정화, 조명, 일치라는 단계로 정립되었다.



## 1. 영성 형성과 정화의 과정

먼저, 연구 참가자들의 영성 형성과 정화의 과정을 서술하였다. 이를 본질적 주제인 예측된 삶, 감내의 한계를 넘어서 아버지, 가족의 기대에 부응함, 갈망 그리고 신앙입문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Table 2> constituent semantics and phenomenological categories: the process of purification

의미단위	드러난 주제	본질적 주제	대 주제
이상과 현실의 괴리	삶의 굴레	예속된 삶	영성 형성과 정화
가난으로 진학포기			
장애로 인한 원망			
낮은 자존감			
삶의 무의미			
조울증을 지닌 아버지	아버지에 대한 절망	감내의 한계를 넘어서 아버지	
가정폭력으로 상처			
장녀 역할	책임감	가족의 기대에 부응함	
칭찬받고 싶은 욕구			
지인의 추천으로 참석	추천으로 참가함	의무감	
막연한 생각			
선교사로서 의무교육			
자원봉사 중 알게 됨	기대감	갈망	
다일을 더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제자의 삶을 살고 싶어서			
많은 에너지가 요구됨			
실존에 대한 고민	하나님을 만남		
지인의 죽음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형제·자매를 따라서			

### (1) 예측된 삶

먼저, 연구참여자들의 성장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는 각각의 연구참여자의 영성형성 과정을 이해하고자 위함이었다. 대부분 어려운 유년기 시절을 지냈는데 그 이유는 경제적인 빈곤,

가정폭력, 장애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다. 연구참여자 6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그 당시 저희 가정을 비롯하여 대부분 가정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생일 잔치에 초대받아 갔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집은 우리 집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2층 양옥집인데 친구 방에는 피아노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난생처음 ‘이렇게 다른 삶도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죠(연구참여자 6).

연구참여자 6은 그 이후 성장하면서 자신의 꿈과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가정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러한 과정에서 심한 좌절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또 다른 연구참여자 3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저는 선천적 장애로 시신경이 약하여 시력이 나빴어요. 그래서 장애로 인해 낮은 자존감에 시달렸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친구의 전도로 교회 생활을 시작하였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6개월 만에 회복되었어요. 그 후 약시자 모임에 참여하고 있어요. 아직도 교정시력이 0.3밖에 나오지 않아서요. 당시에는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 버거운 일로 다가왔거든요(연구참여자 3).

그는 당시를 회상하며 장애는 극복할 수 없는 명예와 같은 것으로 삶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늘 했다고 진술했다. 이와같이 가난과 장애 등은 어린 시절 연구참여자들의 자아가 형성되도록 만든 하나의 과정이었지만, 반대로 이러한 계기가 신앙에 입문하게 된 이유가 되기도 했다.

## (2) 감내의 한계를 넘어서 아버지

한편, 일부 연구참여자 4는 가정의 폭력과 불화가 어린 시절 큰 어려움이라고 언급했다. 그래서 이러한 트라우마가 세상과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되었다고 기억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4는 비록 어린 시절 신앙의 가정에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어려움 등으로 세상에 대한 분노의 감정과 불만족으로 가득 찼던 시절을 보냈다고 고백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되돌아보니 아버지는 조울증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무척 힘들어하셨죠. 그것이 어린 저에게 큰 상처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있었고, 이것이 세상에 대한 불만족으로 표현되었어요.” 또 다른 연구참여자 1은 “아버님이 술을 드시면 폭력을 행사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저나 저희 가정은 교회 혹은 신앙생활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죠. 그런데 결혼 후 아내가 먼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트라우마를 갖고 살았던 연구참여자들은 다일 영성 훈련을 통하여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면의 트라우마에 대하여 직면하는 방법들을 습득하게 되었다고 고백하였는데 이 계기를 통하여 신앙 안에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였다.

### (3) 가족의 기대에 부응함

반면, 일부 연구참여자는 부모의 삶을 롤모델 삼아 성장했다는 진술도 있었다. 연구참여자 5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저는 언니가 있었지만 병약하여 제가 장녀의 역할을 했어요. 동생들을 챙기고, 집안 살림을 돕고,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부모님이 칭찬을 많이 하셔서, 일을 맡겨주시면 더 잘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어요. 장로님이셨던 아버지가 좋은 신앙의 모범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신앙의 멘토 삼았어요(연구참여자 5).

연구참여자 5는 책임감으로 집안일과 동생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하였고, 어린 시절 교회학교에 대한 소중한 추억이 있었다. 이러한 성장 과정은 연구참여자 5가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는 자양분이 되었다.

### (4) 의무감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다일 영성 훈련을 참가하게 되었다. 예를 들자면, 연구참여자 6은 “다일 영성 훈련에 대하여 잘 몰랐어요. 다들 좋다고 하니 막연한 생각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라고 하였고, 연구참여자 2는 “자원봉사를 다니던 아내와 주위 사람들의 추천을 받았어요. 다일 영성 훈련을 참가한 이후 아내가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다일 영성 훈련의 충격 혹은 여파로 한 주간 동안 멍하니 있어서 호기심도 생겼어요.”라고 했다. 연구참여자 5는 이렇게 설명하였다.

제 경우는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 의무적으로 참여한다고 하여서 참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서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강의와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되돌아 보니 한 주간의 시간이 유익했어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있었던 시간이라고나 할까요. 것처럼 강렬했어요(연구참여자 5).

이처럼 다일 영성 훈련에 참여한 동기가 다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기가 어떠했든지 간에 참여자들은 다양한 도전과 신선한 충격을 받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되었다. 하지만 의무적으

로 혹은 주위 추천과 호기심으로만 참여한 것 외에도 본인이 갈망하여 참여한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아래의 경우 해당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5) 갈망

연구참여자 4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저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갈망이 있었어요. 매 주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의 삶이 아니라 제자로서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여하게 되었죠.” 연구참여자 2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먼저 다일 영성 훈련에 참여하였고, 그 후에 제가 참여하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큰 충격이었죠. 기존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내가 살아왔던 삶을 다시 되돌아보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연구참여자 2).

그는 연이어 설명하였다.

대학 진학에 실패하고 나서 재수를 하면서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니깐 큰 원망과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인이라는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어린 시절 교회를 출석했지만, 군에 입대하고 나서부터 방탕한 삶을 살았죠. 알코올 중독은 아니지만 거의 술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것 같았어요. 물론 가끔 교회는 다녔죠. 그러다가 아내가 다일 공동체에 자원봉사를 하다가, 다일 영성 훈련을 소개받고 참여하였죠(연구참여자 2).

그는 신앙생활이란 주일성수와 십일조 생활이 전부였다고 생각했는데, 다일 영성 훈련에 참여하면서 ‘그게 다가 아니구나’ 하는 깨달음과 충격을 받았다. 이를 통하여 그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으며, 다일 영성 훈련 참석 시 가장 앞자리에 앉아 집중해서 강의도 듣고, 적극적으로 공동체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 이후 그는 예수님과 공동체를 사모하게 되었으며, 예수님과 공동체에 대하여 사랑에 빠져버렸으며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 (6) 신앙에 입문한 계기와 영성 형성 과정

연구참여자들의 신앙생활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다양하였다. 예를 들자면, 어린 시절부터 가까운 교회 유치원에 다니다 보니 교회와 신앙이 자연스럽게 삶의 일부분이 된 경우가 있었고,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의 과정에서 신앙에 입문한 사례도 있었다. 그리고, 친구나 주위 친인척 혹은 지인의 권유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례도 있었으며, 다일 영성 훈련이 계기가 되어 본격적으로 신앙

생활을 시작한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연구참여자 대부분이 다일 영성 훈련을 통하여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하게 되었고, 성찰의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투신으로 연결되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즉, 다일 영성 훈련은 연구참여자의 영성 형성에 상당 부분 영향을 주었고, 이를 계기로 공동체적 삶에 투신한 사례도 있었으며, 자신의 궤도를 수정하여 새로운 삶을 사는 사례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연구참여자들 가운데는 다일공동체의 권유로 신학을 공부하여 목회자가 된 경우,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 목회자가 된 경우, 선교지의 필요에 따라 선교사인 남편의 권유로 신학을 공부하여 목회자가 된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었다.

## 2. 조명의 과정

조명의 과정에서는 각성 및 성찰, 내면의 치유, 관점의 변화, 거룩한 만남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다음의 표 3으로 정리하였다.

<Table 3> constituent semantics and phenomenological categories: the process of illumination

의미 단위	드러난 주제	본질적 주제	대 주제
침묵의 중요성	새로운 발견	각성 및 성찰	조명
노동 기도의 중요성			
밥알 하나하나에 감사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	정체성 인식		
특별한 존재라는 깨달음			
미움과 분노 해결	문제의 해결	내면의 치유	
쓴 뿌리가 해결			
상처와 아픔이 해결			
가슴이 울리는 도전	신선한 충격	관점의 변화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나?			
나름대로 재미있었음			
이것은 화가 날 일인가?			
이것은 싫은 것 인가?			
맑은 물 붓기			
생각과 느낌의 틈새 발견			
나의 무기력과 죄성 인식	말씀을 깨달음	거룩한 만남	
새로운 사명 발견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은혜			
이렇게 살아서는 안되겠다.			
용서의 기쁨 경험	회복과 치유		
두려움에서 벗어남			
동행하겠다는 약속			
감정적 카타르시스			
주체할 수 없는 흐느낌			

### (1) 각성 및 성찰

다일 영성 훈련의 과정은 짧은 단기과정이 아니라 오랜 기간이 요구된다. 한 사람의 변화는 세월이 필요하다는 철학에서 비롯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일 영성 훈련 1, 2, 3단계 이후 DTS 과정을 거쳐 국내외에서 생활 훈련을 한다. 이 과정에 참여하면서 전통적인 수도원에서 진행되는 매일 3차례의 기도와 노동 그리고 다양한 교육 등이 제공된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통하여 자아의 각성이 일어나게 된다. 연구참여자 5는 이렇게 설명하였다.

저는 침묵의 시간이 이렇게 큰 울림을 가져주는지 처음 경험했어요. 외적인 침묵과 더불어 내적인 침묵의 중요성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땀을 흘려 노동을 하면서 잡념이 사라지고, 노동이 기도로 바뀐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되었어요. DTS 기간 중 많은 노동을 하는데 힘들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 그것을 깨닫게 되었죠(연구참여자 5).

연구참여자 1은 또한 이렇게 설명하였다.

식사 시간에 농부들의 땀방울이 떨어져 밥알 하나하나가 영글어져서 우리의 식탁에 올라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그동안 허겁지겁 식사하였던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많이 반성하게 되었죠. 그래서 최근에는 식사 시간마다 함께 고백하는 진지 기도가 얼마나 큰 울림이 되는지 모릅니다(연구참여자 1).<sup>7</sup>

다일공동체 구성원들은 매일 식사 시간에 진지 기도를 통하여 햇빛과 단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농부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만들어진 귀한 음식에 감사의 고백을 하며 식사하고 있다. 이처럼 평소에 알고 있고, 익숙한 것이지만(예를 들자면 노동을 통한 땀의 소중함과 음식의 소중함 등) 새로운 것에 관한 깨달음과 각성이 다일 영성 훈련 기간 중 일어나게 된다.

또한, 현대인들이 매일 거울을 보고 자신의 외모를 되돌아보듯이 내면을 성찰하는 일은 영성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행위이다. 다일 영성 훈련 및 DTS 동안 진행된 렉시오 디비나와 복음서 묵상을 통하여 각자의 내면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은 광야 생활 중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영의 양식과 비슷한 것이었다. 이에 관하여 연구참여자 2는 이렇

7) 다일공동체 진지 기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있고/ 한 톨의 곡식에도 만인의 땀이 담겨 있습니다./ 이 땅에 밭으로 오셔서 우리의 밭이 되어/ 우리를 살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이 밭 먹고 밭이 되어/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밭상을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맑은 마음, 밝은 얼굴, 바른 믿음, 바른 삶으로/이웃을 살리는 삶이기를 다짐하며/ 감사히 진지를 들겠습니다.”

게 설명하였다.

하루 세 번 기도하는 시간(조도 아침 6시, 대도 정오 12시, 만도 오후 7시 30분), 자신을 성찰해 보고,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매일 렉시오 디비나를 통하여 말씀 묵상하는 시간은 주님의 대면하는 순간으로 공동체 생활에 영의 양식과도 같은 시간이지요. 마치 출애굽 시기에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동안 다녔던 새벽예배와는 달랐던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2).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매일 진행되는 새벽예배의 경우 기존 교회에서 진행되는 전통적인 스타일이 아니라 말씀을 돌아가면서 읽고, 묵상하면서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바를 나누는 형식이므로 참가자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며, 대도와 만도 시간은 30여 분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은혜롭고 삶을 변화시키는 시간이 되었다.

## (2) 내면의 치유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유형의 상처와 아픔들이 있었다. 아무리 훌륭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내면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지 못하면 깨어진 독처럼 물을 저장하지 못한다는 원리를 깨닫고 다일 영성 훈련 1단계에서는 상처와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다. 물론 1회 참석만으로도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재경험을 통하여 치유되고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심한 우울증, 어린 시절 경험했던 가정폭력, 원하지 않은 장애, 지인의 죽음, 투자의 실패로 인한 어려움, 중독으로 인한 가정의 이혼 위기 등 다양한 종류의 상처와 아픔을 갖고 다일 영성 훈련에 참여했던 참가자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으로 큰 위로를 받았으며, 소그룹 및 대그룹에서 참가자들이 각자의 이야기에 공감해 주는 과정을 통해 회복과 치유를 받았다(조한상, 2020:255-278).

## (3) 관점의 변화

다일 영성 훈련 1단계는 그동안 참가자들이 생각하지 못하였던 21가지의 주제를 매시간 던지며 시작된다.<sup>8</sup> 그래서 참가자들은 평소 본인이 생각하지 못하던 문제에 대하여 질문받고 도전을 받기도 한다. “무엇을 하느냐?” 이전에 “나는 누구이고,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질문은 각 참가자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연구참여자 1은 이렇게 설명하였다.

8) 그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나는 누구인가?” “율법이나, 은혜냐?” “네가 어디 있느냐?” “싫은 것입니까?” “생각과 느낌의 틈새 발견” 그리고 “맑은 물 붓기” 등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각 사람에게 도전을 주며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가 된다.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주제를 접하게 되어서 혼란스러웠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 서부터 왔는가? 등등은 분주한 삶으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없었던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아, 여기 무엇 인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 계기를 통하여 영성 훈련에 집중하게 되었고,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연구참여자 1).

연구참여자 4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꼭 성공해야지’하는 생각이 가득했는데 영성 훈련을 통하여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된 것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삶이 가치 있고 보람된 것 같아요.” 이를 통하여 그는 다 일 영성 훈련이란 자기 성취가 아니라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는 연이어 이렇게 설명하였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해 왔지만 만족하지 못했어요. 진리를 찾아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다 녀어요, 그러다가 다일 영성 훈련을 하면서 무엇인가 내가 찾는 것이 여기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얻으려면 많은 에너지가 요구되는구나. 100%를 투자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연구참여자 4).

이와같이 연구참여자들은 강의와 노동 등 생활 훈련을 통하여 관점의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발생한 사실과 나의 감정을 분리해서 보는 객관적 관점을 소유하게 되었다.

#### (4) 거룩한 만남

아울러 연구참여자들은 렉시오 디비나와 복음서 묵상 등 전통적인 영성 훈련이 주를 이루는 다 일 영성 훈련 3단계와 다일 DTS에서 말씀과 부딪치는 경험을 하였다(박노권, 2008; 허성준, 2014; Thelma Hall, 1988; Duncan Robertson, 2011; Raymond Studzinski, 2009). 그리고 이 시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난 경험을 하였다고 고백했다. 연구참여자 4는 이렇게 설명하였다.

렉시오 디비나를 하면 할수록 나의 죄와 무가치함을 더 깊이 인식할 수 있었어요.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무너졌다가 다시 힘을 얻는 거죠. 만일 이러한 시간이 없이 노동하고 봉사만 했다면 공동체가 오래 가지 못했을 거예요. 소진되는 일이 거든요. 하

지만 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은혜로 봉사하고 섬기며 노동하는 것이죠(연구참여자 4).

또 다른 연구참여자 5는 이렇게 설명하였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는 있었지만, 다시 발견하게 되었어요.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은혜를 발견하고, 제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참 기뻐요. 이제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연구참여자 2는 이렇게 설명하였다. “제 경우는 낮은 자존감이 회복되고, 나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무한함을 발견하였던 시간이었어요. 나 자신을 개방하며, 객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식할 수 있었죠.”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각자 렉시오 디비나와 복음서 묵상 등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다.

또한, 복음의 핵심은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렉시오 디비나와 복음서 묵상을 통하여 연구참여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회복되었다. 연구참여자 3은 이렇게 설명하였다. “렉시오 디비나를 통하여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불러 주셨어요. 낮은 자존감도 회복되고 치유되었어요.” 또한, 연구참여자 4는 이렇게 언급하였다. “렉시오 디비나를 통하여 내 속에 있는 깊은 상처와 쓴 뿌리를 대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 결과 미움과 분노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 결과 그는 무너진 독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도무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쏟고 말았다고 고백했다. 그는 감정적 카타르시스를 경험하였다. 한편, 연구참여자 6의 경우는 이렇게 언급하였다. “기쁨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런 기쁨의 축제를 경험할 수 있구나. 그리고 화해의 시간을 통하여 관계 회복과 용서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큰 깨달음의 시간이었어요.” DTS 기간 머리맡만 알았던 이론을 삶으로 적용하고, 생활 훈련을 해 나감에 있어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참가자 개개인의 인격이 다듬어 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 3. 일치의 과정

일치의 과정에서는 자유, 새 출발 그리고 일상의 영성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다음의 표 3으로 정리하였다.

&lt;Table 4&gt; constituent semantics and phenomenological categories: the process of union with God

의미단위	드러난 주제	본질적 주제	대 주제
형제·자매의 죽음으로 해방	해방	자유	일치
중독으로부터 해방			
분노와 쓴뿌리로부터 해방			
우울증에서 해방			
생활인에서 사명인으로 변화	변화	새 출발	
자아성취에서 자아포기로			
성공에서 섬김으로			
피상적인 삶에서 헌신으로			
정리정돈 된 삶			
새로운 습관의 형성			
자존감의 회복			
새로운 사명 발견			
참기쁨 발견/경축의 삶			
조그마한 좁은 길을 발견	새로움		
자연만물이 새로워 보임			

### (1) 자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2)라는 구절을 경험하고 각자의 삶의 이슈들이 해결되는 경험이 다일 영성 훈련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4는 이렇게 설명하였다.

내 안에 처리되지 못했던 감정과 신앙의 이슈가 해결되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논리적 이해가 없으면 거부했는데, 경험함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신비를 수용하게 되었어요.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니, 자아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고, 타인의 상처를 수용하게 되었죠. 그 과정에서 내면 깊숙이 있었던 분노의 뿌리를 만나게 되었고, 이를 두려움 없이 직시하게 되었어요(연구참여자 4).

그리고 연구참여자 4는 연이어 언급했다. “아울러 다일 영성 훈련은 피상적이고 깊이 없는 신앙 생활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께 투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혼란도 경험하고, 분노로부터 자유도 경험하게 되었죠.” 또한, 연구참여자 2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저는 아무래도 큰형의 죽음이 제게 큰 짐이었던 것 같았어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제게는 큰 형 몫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가족에 대한 책임감 같은 것이었죠. 그런데 다일 영성 훈련을 마치고 나서 이러한 짐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동안 나의 힘으로 살아갔던 인생이었는데 ‘이제 주님께 맡겨 버리자’라는 생각이 들었죠(연구참여자 2).

아울러, 연구참여자 6 역시 극단적 선택을 한 언니의 죽음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 중 하나였다. 하지만 다일 영성 훈련 참여 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에 자신의 이성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되니 자유를 느낄 수 있다고 고백하였다. 이처럼 자유를 경험한 연구참여자들은 복음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 것이다.

## (2) 새 출발

다일 영성 훈련은 많은 이들에게 삶의 전환점 및 새 출발의 계기가 되었다. 인생의 전환기에 있는 사람들, 갈등과 분쟁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지치고 낙망한 사람들이 다일 영성 훈련을 참가함으로써 삶의 전환점을 경험하게 되었다. 어떤 이는 우울증에서 해방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는 부부관계가 회복되기도 했고, 연구참여자 중 한 분은 과거의 어두운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전환점이 되기도 했다. 그러한 면에서 다일 영성 훈련은 삶의 전환점이 되어 성공에서 섬김으로, 자아 성취에서 자아 포기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연구참여자 4는 이렇게 설명하였다. “형식적인 신앙인에서 헌신 된 제자의 삶으로 변화되는 전환점과 같았어요. 제 가치관이 많이 변화했으니까요.” 아울러 연구참여자 3은 이렇게 언급했다. “제 경우는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었던 기간이었어요. 예를 들자면, 신발이나 물건들을 정리 정돈을 하는 습관이라든지, 설거지를 자원하면서 섬기며 생활 태도까지 변화된 것 같아요.” 연이어 연구참여자 1은 이렇게 설명하였다. “저는 중독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했어요. 사실 제가 혼자 있었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중독으로부터 자유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공동체 안에 속하니 가능했었던 것이죠. 제가 중독에서 벗어나서 이제 가족 모두가 행복하죠.” 그동안 자신의 삶을 얹어매었던 많은 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다일 영성 훈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3) 일상의 영성

최일도 목사는 다일 영성 훈련 20주년 기념행사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다일공동체는 산상수훈의 기초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산상수훈의 여러 가르침이 있지만 다일 공동

체의 영성을 잘 나타내는 산상수훈의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온전함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 5:48) 온전함은 완전함이 아닙니다. 죄가 없고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인간적으로 노력하는 교만은 거룩함을 가장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을 낳습니다. 사람이 보는 곳에서는 거룩한 척하며 자신의 나약함과 부서진 모습을 감추고 억압하다가 어느 순간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것이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온전함은 우리의 나약함을 서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며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한 영혼, 깨어진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곳이 바로 다일공동체입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신비이며 공동체가 하나님의 온전함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안의 욕구와 욕망, 상처로 깨어진 모습을 발견하고 받아들이며 고백하고 공동체 안에서 용납받는 경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성 수련(훈련)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참된 영성 수련(훈련)은 4박 5일 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생활 영성 안에서 영성 수련(훈련)의 깨달음이 뿌리를 내릴 때 일상이 영성이 되고 영성이 일상이 되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최일도, 2020:8).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일 영성 훈련은 참여자들이 새로운 발견을 통하여 일상의 영성을 살아가는 힘을 제공하고 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분리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매일 각자의 삶에서 영성 생활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2는 이렇게 설명하였다. “다일 영성 훈련 이후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과거에는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일상에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세상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어서 그는 다일 영성 훈련 이후에 모든 것이 새로워진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경험은 평소에 그냥 지나쳤던 자연 만물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졌고, 일상의 삶 속에서 영성 생활을 살아가게 되는 경험을 한 것이다.

## V. 요약 및 논의

기독교 영성이란 무엇인가? 산드라 슈나이더스(Sandra M. Schneiders)에 따르면, “영성이란 자신이 인식하는 궁극적인 가치를 향해 고립이나 자기 몰두의 방식이 아닌 자기 초월의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통합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함으로 얻어지는 경험”이라고 했다(Schneiders, 1986:266). 이를 본 연구자의 말로 표현하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각자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살아진 경험(lived experience)이며, 삶 속에서 궁극적 가치를 향한 자기 초월 및 통합적 경험으로, 훈련

을 통해 얻어지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는 세상과의 단절이 아닌 적극적으로 참여를 통하여 이루는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은 다일 영성 훈련을 통하여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초월적 경험을 했으며 이 경험은 내적 정화와 치유 그리고 회복의 과정을 거쳐 참여자의 생각과 가치관 및 세상을 보는 눈을 변화시켰고, 세상에 대한 적극적 참여로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Schneiders, 1989:682).

본 연구를 정리하자면, 먼저, 연구참여자 대부분은 다일 영성 훈련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들로 구성되었으며 대부분 10여 차례 이상 다일 영성 훈련에 참여한 재경험자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다양한 삶의 굴레를 경험하였는데, 오히려 이러한 예측된 삶이 실존에 대한 고민과 영원한 것에 대한 동경으로 승화되었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다일 영성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참여를 통해 내면의 울림과 변화를 경험하였고, DTS를 거치면서 머리에서 가슴으로, 삶에서 삶으로, 이해에서 수용으로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되는 경험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삶 속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와 상처와 아픔들이 다일 영성 훈련을 통하여 해결되어 자유 해 지는 것을 보게 되었으며, 분노의 대상을 용서하게 되는 체험을 하였다. 그 밖에 침묵과 노동 그리고 밥알 하나하나의 중요성을 발견했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시간을 통하여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화가 날 일인가? 싫은 것인가? 맑은 물 붓기, 생각과 느낌의 틈새 발견하기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한 강의들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

비록 수치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볼 수 없었으나 인터뷰 과정에서 본인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분노의 감정, 깊은 우울의 감정 그리고 상처 등이 회복되고 치유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자면, 다일 영성 훈련 1단계에는 21가지 화두 가운데 하나인 “화가 날 일입니까?”라는 강의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소그룹 모임, 그리고 그 후 화를 푸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하여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 후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는가 하는 질문에서 자유를 얻게 되어 큰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가 내적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별히, DTS 기간에 매일 3차례 진행되는 렉시오 디비나와 복음서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다일 영성 훈련 3단계 기간 중 진행되었던 묵상을 통해 사랑과 용서의 예수님을 만나 “나는 특별한 존재이며, 보배롭고 존귀한 자”(사 43:4)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주체할 수 없

는 흐느낌 등을 통해 감정적 카타르시스도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체험은 궁극적으로 자유와 새 출발의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결단으로 이어져 사명을 발견하고 투신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일상의 영성으로 승화되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

본 연구는 영성 훈련의 현상학적 연구로 다일 영성 훈련을 경험한 참가자들의 내면 변화를 탐구하여 이들의 삶을 추적 관찰하였다. 지오르기 방법론을 이용한 본 연구는 인간의 심리 감정 밑바닥에 있는 드러나지 않은 정서를 조명하여 드러내 봄으로써 연구참여자 의식의 구조를 밝혀내기 적합한 연구 방법이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발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일 영성 훈련 참여 경험은 참가자들의 우울, 분노 등의 부정적 정서가 감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다일 영성 훈련 참가자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여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었으며, 이웃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다일 영성 훈련 참가자들은 영성 훈련 참가 후 영적 자유 등 긍정적인 정서가 증가하여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어 삶의 통합에 도움이 되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본 연구를 통해 연구참여자들 다일 영성 훈련 참여 과정 가운데 전통적인 영적 여정인 영성 형성 및 정화, 조명, 일치의 과정으로 변화가 일어났으며, 부정적 정서가 감소하고 긍정적 정서가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근 전 세계에 몰아닥친 코로나19 (COVID-19) 상황은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우리 사회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Schenker, 2020, 박성현 역). 한국교회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의 심화, 탈 종교화 그리고 기후변화라는 기존의 도전과 더불어 비대면, 비접촉이라는 새로운 일상을 직면하게 되었다. 2년여 지속된 코로나19(COVID-19) 상황은 비대면 예배의 확산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많은 교회는 성도 수와 헌금의 급감, 교회에 대한 신뢰 하락과 공공성의 위기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영적인 쇠락의 경향이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길을 모색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한국교회는 거대 담론보다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갱신과 회복 및 개교회의 체질 개선과 부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영성 훈련을 하루빨리 도입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일 영성 훈련을 현상학적으로 접근하여 탐구함으로써 한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 VI. 나가는 말

본 연구는 영성훈련 참가자들의 현상학적 연구라는 주제로 다일 영성 훈련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움직임과 변화를 탐구하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다일 영성 훈련을 참가했던 경험이 있는 성인 6명이 선정되었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지오르기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으로 분석되었고, 총 60개의 의미 단위, 16개의 드러난 주제, 12개의 본질적 주제, 그리고 3개의 대 주제로 범주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의 영적 여정 가운데 발생하는 변화를 영적 형성과 정화, 조명, 일치라는 전통적인 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참여자 대부분은 분노와 우울의 감정 등이 감소하고 상처와 아픔 및 트라우마 등이 회복되고 치유되어 영적 자유를 누렸다. 둘째, 다일 영성 훈련에 참여하여 렉시오 디비나 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였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었으며, 이웃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새로운 사명과 목표 의식 등 새로운 관점이 생겨서 긍정적인 요소가 상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다일 영성 훈련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한국교회는 각 교회 상황에 맞는 영성 훈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영적 갱신에 힘써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비록 제한된 시간과 한정된 연구인력으로 다양한 집단에 대한 심층 인터뷰가 미흡했다는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여 년 지속되어 온 다일 영성 훈련에 대한 질적연구를 최초로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 고 문 헌

-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 연구소 편(2006a). **심리척도 핸드북 (1)**. 서울: 학지사.  
[Behavior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of Korea University(2006a).(Eds.). *Psychological Scale Handbook (1)*. Seoul: Hakjisa.]
-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 연구소 편(2006b). **심리척도 핸드북 (2)**. 서울: 학지사.  
[Behavior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of Korea University(2006a).(Eds.). *Psychological Scale Handbook (2)*. Seoul: Hakjisa.]
- 김동란, 김윤희, 김정훈(2019). 영성훈련 참여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기독교 신학논총**, 112, 251-292.
- [Kim, D.R., Kim, Y.H., Kim, J.H.(2019).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xperience of Spirituality Training Participants: Focusing on the Lectio Divina. *Korea Journal of Christian Studies*, 112, 251-292.]
- 김영수(2017). 장로교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배우는 방법에 대한 질적연구. **신학과 실천**, 54, 117-143.
- [Kim, Y.S. (2019). A Qualitative Research on the Way How Presbyterian Christians in Korea Learn about Prayer. *Theology and Praxis*, 54, 117-143.]
- 김희영(2019). 북한 이탈주민 여성의 영성 형성 과정 연구: 자기 정체성과 자기 초월을 중심으로. **선교와 신학**, 49, 205-247.
- [Kim, H.Y.(2019). A Study on the Formation of Spirituality in North Korean Defector Women : Focusing on Self-Identity and Self-Transcendence. *Mission and Theology*, 49, 205-247.]
- 김영천(2017). **질적연구 방법론 I**. 파주: 아카데미 프레스.
- [Kim, Y.C.(2017).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 Paju: Academy Press.]
- 김주경, 오대희 (2019). 비정규직 비혼 중년여성의 불안정한 현실과 교회의 역할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신앙과 학문**, 24(1), 193-221.
- [Kim, J.K., Oh, D.H.(2019). 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Unstable Reality of Unmarried Middle-Aged Female Temporary Workers and the Role of the Church. *Faith and Scholarship*, 24(1), 193-221.]
- 박노권(2008). **렉시오 디비나를 통한 영성 훈련: 심리적 치유와의 관계 분석**. 서울: 한들 출판사.
- [Park, N.K.(2008). *Spiritual Training through Lectio Divina: Relational Analysis of Psychological Healing*. Seoul: Handeul Publishing Company.]
- 박성현 역.(2020). **코로나 이후의 세계**. Schenker, Jason.(2020). The Future After COVID. 서울:

미디어 숲.

- [Park, S.H.(2020). The Future After COVID. Seoul: Media Soop. Trans. Schenker, Jason.(2020). *The Future After COVID*. Austin, TX/ Prestige Professional Publishing, LLC.]
- 방윤주(2021). 애착 유형별 묵회 상담적 함의: 하나님 애착과 기도 경험을 중심으로. **장신논단**, 53(3), 183-213.
- [Bang, Y.J.(2021). Pastoral Counseling Implications by Attachment Type: Based on Attachment to God and Prayer Experiences.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53(3), 183-213.]
- 신경림 역. (2000). **체험연구: 해석학적 현상학의 인간 과학 연구방법론**. Manen, Max Van. (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서울: 현문사.
- [Shin, K.L.(200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Seoul: HyunMunSa. Trans. Manen, Max Van. (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Herndon, VA: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신경림 외. (2004). **질적연구 방법론**. 서울: 이화여대 출판부.
- [Shin, K.L. et al. (2004).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Seoul: Ewha Woman's Univ. Press.]
- 신경림 외 역. (1985). **현상학과 심리학 연구**, Giorgi, Amedeo.(1991).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서울: 현문사.
- [Shin, K.L. et al. (1985).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Seoul: HyunMunSa. Trans. Giorgi, Amedeo.(1991).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Pittsburgh, PA.: Duquesne Univ. Press.]
- 유장춘(2014). 공동체의 교회 사회 사업적 의미와 그 모델로서 다일공동체에 대한 소연구.” **교회사회사업**, 26, 7-46.
- [You, J.C. (2014). A Minor Study of the Meaning of Community as Church Social Work and Dail Community as its Model. *Church Social Work*, 26, 7-46.]
- 유장춘, 강병덕(2015). 교회사회사업 프로그램으로서 영성 수련회에 대한 효과성 검증: 다일영성 수련 “아름다운 세상찾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43, 239-262.
- [You, J.C. Kang, B.D.(2015). The Efficaciousness of Spiritual Training as Church Social Work Program: Focusing on Finding Beautiful World of Dail Spiritual Retreat.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43, 239-262.]
- 유해룡(1999). 영성학의 연구방법론 소고. **장신논단**, 15, 428-450.
- [Yoo, H.R.(1999). A Minor Study of Research Method on Spirituality.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15, 428-450.]

- 이강학(2010). 한국 기독교 성육신의 영성과 사회봉사. **교회와 사회복지**, 13, 117-153.
- [Lee, K.H.(2010). Korean Christian Spirituality and Social Service. *The Korea Academy of Church Social Work*, 13, 117-153.]
- 이강학(2016). 기독교 영성학 방법론과 그 적용: 샌드라 슈나이더스(Sandra M. Schneiders)와 Graduate Theological Union의 기독교 영성 박사과정의 경우.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02, 221-245.
- [Lee, K.H.(2016). A Methodology for the Study of Christian Spirituality and Its Application : Sandra M. Schneiders and the Ph. D. Program of the Graduate Theological Union. *Korea Journal of Christian Studies*, 102, 221-245.]
- 이강학(2017). 다일공동체 영성의 뿌리 I: 푸코의 영성과 떼제의 영성. 최일도(편저). **다일공동체 창립 25주년 학술대회 발표 자료** (pp. 26-48). 가평: 다일, 2017.
- [Lee, K.H.(2017). The Root of Dail community's Spirituality I: The Spirituality of Charles de Foucauld and Taize Community. Choi, I.D. (Eds.). *Academic Presentation Papers on 25th Anniversary of Dail Community* (pp. 26-48). GaPyeong: Dail.]
- 이남인(2014). **현상학과 질적연구: 현상 응용학의 한 지평**. 파주: 한길사.
- [Lee, N.I.(2014). *Phenomenology and Qualitative Research: A Horizon of Phenomenal Application Studies*. Paju: HanGilSa.]
- 조지혜 (2019). 기독교인 여성들의 치유적 대화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신앙과 학문**, 24(4), 5-49.
- [Jo, J.H.(2019). Phenomenological Research on Healing Dialogue with Christian Women. *Faith and Scholarship*, 24(4), 5-49.]
- 조한상(2020).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영성 수련: 다일 영성 수련의 회복과 치유를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68, 255-278.
- [Cho, H.S.(2020). A Study of Spiritual Training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 Focusing on Dail Spiritual Training's Recovery and Healing Ministry. *Theology and Praxis*, 68, 255-278.]
- 조한상(2021). 삼위일체 신비가 담겨 있는 다일 영성 수련. 최일도(편저). **밥퍼 목사 최일도의 러브스토리** (pp.365-374). 용인: 킹덤북스.
- [Cho, H.S.(2021). Dail Spiritual Training with the Mystery of Trinity. Choi, I.D. (Eds.). *Love Story of Bob Peo Rev. Choi Il Do* (pp. 365-374). YongIn: Kingdom Books.]
- 조현미, 최은정, 조은주 (2018). 목회자 사모의 직장생활 경험. **신앙과 학문**, 23(1), 159-195.
- [Joe, H.M. Choi, E.J. Joe, E.J.(2018). Working Experience of Pastor's Wives. *Faith and Scholarship*, 23(1), 159-195.]
- 지상선, 현은자 (2021). 북한 이탈주민의 한국에서의 자녀교육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개신교인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6(3), 83-123.

- [Ji, S.S. Hyun, E.J.(2021). A Qualitative Study on the North Korean Defectors' Experiences in Children's Education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 Experiences of Protestants. *Faith and Scholarship*, 26(3), 83-123.]
- 차성경(2021). 섬김과 나눔의 삶을 통해서 보다 아름다운 세상 만들고 싶다. *뉴스메이커*, 3, 33-37.
- [Cha, S.K.(2021). I want to make a more Beautiful World through the Life of Serving and Sharing. *Newsmaker*, 3, 33-37.]
- 최미경(2014). 베트남 해체가족 이주여성의 홀로서기 과정에 관한 경험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45, 199-227.
- [Choi, M.K.(2014). An Experience Study on "Self-Reliance" Process of Vietnam Immigrant Women in Broken Marriage.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45, 199-227.]
- 최승기(2014). 영성학 방법론 탐구: 산드라 슈나이더스(Sandra M. Schneiders)를 중심으로. *신학논단*, 77, 297-327.
- [Choi, S.K.(2014). Exploring Methodologies for Christian Spirituality: Focusing on Sandra M. Schneiders. *Theological Form*, 77, 297-327.]
- 최일도(2020). 다일영성수련 20주년 감사축제 영성 특강(I): 일상이 영성으로, 영성이 일상으로. 최일도 (편저). *설곡산 가는 길* (pp.2-8). 가평: 다일.
- [Choi, I.D.(2020). Special Lecture on 20th Anniversary of Dail Spiritual Training (1): From Daily Life to Spirituality, from Spirituality to Daily Life. Choi, I.D. (Eds.). *Road to Mt. Seolgok* (pp. 2-8). GaPyeong: Dail.]
- 최일도(2017). 다일공동체의 통전적 영성 (1),(2). 최일도 (편저). **다일공동체 창립 25주년 학술대회 발표 자료** (pp. 49-73). 가평: 다일.
- [Choi, I.D.(2017). Integrated Spirituality of Dail Community (1),(2). Choi, I.D. (Eds.). *Academic Presentation Papers on 25th Anniversary of Dail Community* (pp. 49-73). GaPyeong: Dail.]
- 최 홍(2020). 무엇에나 준비되고 무엇이나 받아들이기까지. *Dail Community*, 211, 13.
- [Choi, H.(2020). To be Prepared for Anything and to Accept Anything. *Dail Community*, 211, 13.]
- 한미영, 손수경 (2017). 한국 간호 선교사의 해외선교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신앙과 학문*, 22(3), 265-288.
- [Han, M.K., Son, S.K.(2017). A Phenomenological Study on Korean Nurse Missionary's Experience in Oversea Missionary Work. *Faith and Scholarship*, 22(3), 265-288.]
- 허성준(2014). **수도 전통에 따른 렉시오 디비나 I**, 독서와 묵상. 왜관: 분도 출판사.

[Heo, S.J.(2014). *Lectio Divina I, Reading and Meditation according to the Monastic Tradition*. Waekwan: Bundo Publishing Company.]

Hall, Thelma (1988). *Too Deep for Words : Rediscovering Lectio Divina*. New York: Paulist Press.

Puhl, Louis J. (1968). *The Spiritual Exercises of St. Ignatius: Based on Studies in the Language of the Autograph*. Chicago: Loyola Press.

Robertson, Duncan (2011). *Lectio Divina: the Medieval Experience of Reading*. Kentucky: Cistercian Publications; Collegeville, Minn.: Liturgical Press.

Schneiders, Sandra M.(1986). Theology and Spirituality: Strangers, Rivals, or Partners? *Horizons*, 13, 253-274.

Schneiders, Sandra M.(1989). Spirituality in the Academy. *Theological Studies*, 50, 676-697.

Studzinski, Raymond(2009). *Reading to Live: the Evolving Practice of Lectio Divina*. Kentucky: Cistercian Publications; Collegeville, Minn.: Liturgical Press.

“How Meditation May Change the Brain,” New York Times (2021.10.1.).

Retrieved from

<https://well.blogs.nytimes.com/2011/01/28/how-meditation-may-change-the-brain/>(2011.1.28.)

## 영성 훈련 참여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다일 영성 훈련을 중심으로

###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Spiritual Training: Focusing on Dail Spiritual Training

조 한 상 (호남신학대학교)

####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일 영성 훈련 참가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경험과 변화를 이해하고 묘사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하여 다일 영성 훈련을 참가했던 경험이 있는 성인 6명이 선정되었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지오르기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으로 분석되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의 영적 여정 가운데 발생하는 변화를 정화, 조명, 일치라는 전통적인 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참여자 대부분은 분노와 우울의 감정 등이 감소하고 상처와 아픔 및 트라우마 등이 회복되고 치유되어 영적 자유를 누렸다. 둘째, 다일 영성 훈련에 참여하여 렉시오 디비나 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였다. 셋째, 새로운 사명과 목표 의식 등 새로운 관점이 생겨서 긍정적인 요소가 상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록 제한된 시간과 한정된 연구인력으로 다양한 집단에 대한 심층 인터뷰가 미흡했다는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여 년 지속되어 온 다일 영성 훈련에 대한 질적연구를 최초로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한국교회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길을 모색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교회의 재정과 성도 수가 감소한 상황에서 다일 영성 훈련은 하나의 대안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거대 담론보다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갱신과 회복 및 개교회의 체질 개선과 부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영성 훈련을 하루빨리 도입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그 한 가지 대안으로 다일 영성 훈련을 현상학적 접근으로 탐구하였다.

주제어 : 다일 영성 훈련, 현상학적 연구, 지오르기 방법, 영적 자유, 거룩한 만남